

“절편 녹용 시장 개방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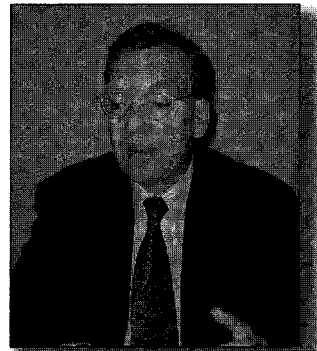
뉴측 입장 밝힌 대사 서한, 절편녹용 수입 입장 고수

지난 5월25일 양록협회 임원진이 뉴질랜드 대사관을 방문, 절편 녹용 수입 절대 불가 방침을 밝히고 향후 대응 방안을 피력한 바 있다. 이후 뉴측에서는 양록협회의 향후 방안을 지속적으로 문의하는 등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다가 지난 6월20일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내왔다. <편집자·주>

<뉴질랜드 로이퍼거슨대사 서한 전문(全文)>

친애하는 회장님

지난 25일 회장님과 만나 뉴질랜드의 절편 녹용 한국 시장 진출 제안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그날 회의는 아주 건설적인 것이었다고 믿습니다. 특히 서로의 견해를 보다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뉴질랜드 로이퍼거슨 대사

최근 저는 한국 양록 협회지인 「한국양록」의 최근호에 실린 기사와 농민신문, 축산신문, 사슴신문 등에 게재된 기사들을 관심있게 읽어 보았습니다. 뉴질랜드의 입장을 이해시키기 위해 「한국양록」에 다음의 글도 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또한 뉴질랜드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위 신문사들에게도 글을 보낼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달 회장님과 협회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로의 공통된 관심사를 계속 의논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뉴질랜드, 녹용 시장에서 신뢰를 쌓기 위한 상호 협조 제의”

최근 한국 양록업자들이 절편 녹용 수입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의 문제에 대한 뉴질랜드의 입장을 설명하고자 한다.

국제 무역 거래되는 상품들은 농산물을 포함하여 시장의 수요에 의해 가격과 공급 변동이 일어나게 된다.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농산물 생산자들은 경험을 통해서 그러한 불확실성과 싸우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유통자, 소비자, 그리고 심지어 공급자와도 전략적인 연대를 이루는 것임을 알았다.

뉴질랜드가 한국의 낙농업, 그리고 그보다 약하긴 하지만 소사육업의 기반 조성에 기여한 사실은 기록에도 잘 나타나 있다. 더 최근에는 뉴질랜드와 한국 키위 생산자들이 같이 일본과 같은 제 3 시장 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 성공적으로 키위를 공급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뉴질랜드는 한국양록협회와 뉴질랜드 양록협회(GIB)간에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녹용 시장을 넓히기 위해 협조할 여지가 있다고 믿는다. 한국양록자들에게 구체적인 이득은 자연치료제에 대한 세계적인 소비자 선호도를 증가시키려는 뉴질랜드의 마케팅 노력과 뉴질랜드

업계의 자체적인 연구 개발 프로그램에 합류하는 것 등이 있다. 뉴질랜드양록협회(GIB)는 협력의 의사를 강력히 표명했으며 우리도 한국양록협회가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보기를 권장한다.

특히 절편 녹용 허용 요구와 관련하여 뉴질랜드 정부의 기본 동기는 가짜 녹용이나 밀수 녹용에 대한 우려를 가진 것이다. 현재 뉴질랜드 전지녹용이 수출되면 뉴질랜드가 원산지인 제품으로 팔린다는 것을 보장할 방법은 아무 것도 없다. 부도덕적인 업자들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뉴질랜드 정부는 녹용을 절편하여 밀봉한 후 표시하여 진짜 뉴질랜드 원산지 제품임을 인증받아 한의사와 최종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축산물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어 한국에서 요구하는 보증을 해 줄 수 있다.

둘째로, 협회에서도 알다시피 뉴질랜드에는 순록이 전혀 없다. 그러나 한국은 제 3국으로부터 순록이 유입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뉴질랜드는 순록뿔의 확인을 돕기 위해 한국 당국에 DNA 검사 방법을 제공했다. 또한 뉴질랜드 법에 따르면 제 3국으로부터

유래한 모든 축산물에 뉴질랜드 축산물 수출 검역증에 그 사실을 명시해야만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순록뿔이 수출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셋째로, 뉴질랜드는 현 상황에서 한국으로의 녹용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

녹용 생산은 사슴육과 녹용의 가격에 의해 조정되고 절편 녹용의 양은 특히 수입 초기에는 아주 적을 것이다. 그러나 뉴질랜드는 녹용을 보다 확실하고 최종 소비자에게 편리한 방식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를 희망한다. 뉴질랜드는 앞으로도 계속 한국 수입자들이 전지로 녹용을 들여 와서 한국에서 추가적인 가공을 거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여 넓은 범위의 뉴질랜드 녹용 제품을 한국 소비자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GIB에 따르면, GIB는 한국 시장이 현재 공급 포화 상태이며 또한 제3시장의 수요가 늘어 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한국보다 한국 외의 시장에서 이미 두 배의 시장 개발 비용을 들이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한국 양록업자를 포함한 녹용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더욱이, 지난 몇주간 사슴 관련 언론에 나타난 많은 기사에 인용된 것을 보

면, 한국양록협회가 뉴질랜드 GIB의 순수 사립 기관으로의 전환을 촉구 했는데, GIB는 뉴질랜드 정부 기관이 아님을 여기서 다시한번 강조한다. 이런 의미로 보면 GIB는 이미 사립 기관이다. GIB는 한국양록협회처럼 업계 단체로 뉴질랜드 양록업자들과 양록산업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관이다. 그 수입은 정부의 어떠한 지원도 없이 독자적으로 농민들로부터 거두는 부과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한국양록」을 포함한 다른 기사에는 뉴질랜드의 절편녹용 허용 요구가 국제 무역 관행에 위배된다고 한 한국양록협회의 말을 인용했다. 세계 무역 기구, 즉 WTO는 무역 규정을 만드는 국제 기구이다. 한국을 포함한 모든 WTO의 회원국들은 개발된 무역 규정과 무역 장벽 감소 및 WTO가 보장하는 낮은 관세 등으로 수출에 이득을 보고 있다.

우리는 뉴질랜드의 절편녹용 허용 요구가 WTO의 원칙에도 완전히 부합된다고 믿는다.

「WTO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는 “기술적인 규정이 필요 이상으로 무역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자국 유래 동종 제품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것이 절편 녹용에 대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만약 절편녹용

이 한국에서 한국 생산자들에 의해 생산되고 유통된다면 한국정부는 한국 양록업자처럼 똑같은 규정에 의해 외국 생산자들이 녹용을 수출하고 유통하는 것을 허락하는 국제적인 법적 의무를 지니는 것이다.

이 점 이외에도, 뉴질랜드의 한국과의 무역 관계를 이어온 지속적인 협력 정신으로 뉴질랜드 정부는 서두르지 않고 한국 정부와 꾸준히 협력하여 1994년부터 계속 이 문제에 대한 양자간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사슴신문에서 두 정부가 제 5차 경제공동위원회를 오는 9월 개최하여 녹용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한 것도 정당하고자 한다.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남아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녹용에 대한 기술적 회의를 더 가질 예정이지만 그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제공동위원회 동안 녹용 문제를 다루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 공동위는 더 폭넓은 무역과 경제에 걸쳐 양국 정부의 공통 관심을 다룬다.

「한국양록」에서 뉴질랜드가 생녹용의 수출을 자제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뉴질랜드 정부는 개방적이고 공평한 무역을 권장할 뿐, 부당하게 뉴질랜드의 수출이나 수입의 흐름을 규제하고 막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해야 했다. 우

리 수출자들은 시장 상황이나 그들이 보는 시장 기회에 대응할 뿐이다.

비슷하게 건녹용 수출 가격의 조정 요구에 대해서도 뉴질랜드 수출자들은 전지 건녹용의 가격을 지시하지 않으며, 그들 제품의 가격은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한국 시장의 수요와 공급 및 다른 요소들에 근거하여 정해진다. 그러면 뉴질랜드 수출자들은 그 가격을 수용하거나 거부한다. 만약 뉴질랜드 수출자가 그 가격을 거부하면 다른 나라의 공급자들이 수입자에게 공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뉴질랜드 절편녹용 수입으로 녹용 효능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불법 유통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에 우리는 의문을 가진다. 사실, 뉴질랜드로부터 오는 축산물은 그 질이나 청결함, 가치 등의 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가 한국에 절편녹용 허용을 제안한 것도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녹용 최종 소비자들의 신뢰를 개선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우리는 위 사항들이 한국양록협회에서 뉴질랜드의 절편녹용 한국 수출에 대한 입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음을 믿는다. 이 사항들에 대한 질문이나 대화는 언제든지 환영한다. **한국양록**